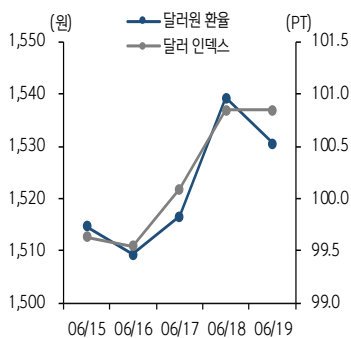


닭 머리보다 용 꼬리가 낫다?

FX Talk & Insight : 금주 1,520~1,550원 전망

미국과 이란이 MOU 합의를 마침내 공식화하면서 시장이 고무되고 달러화가 하락했지만, 케빈 워시 체제의 첫 FOMC가 매파적 본색을 드러내며 달러화에 다시 힘을 실는 양상. 연준이 소통을 줄이는 것은 미국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 25일 발표될 미국 1분기 GDP 확정치 및 5월 PCE 인플레이션도 해당.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과 잠시 봉합된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는 향후 협상 좌초 위험을 내포하기에, 중동 변수는 끝이 아닌 시작

외환시장



미국과 이란간 종전 협상 MOU가 공식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고유가의 두려움에서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고 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전쟁 직전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지만 미달러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원화는 1,500원대에 익숙해지려 하는 듯하다. 아무래도 점도표가 상향조정된 매파적 FOMC에 대한 부담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사실 외견상 유가가 트리거일 뿐, 미국 경제와 자산 시장을 보면 올해 금리인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AI 수출을 막으며 신기술을 독점하려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미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여간해서는 꺾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원화 환율이 한 단계 더 낮은 레벨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급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는 23일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승격을 위한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도 결과를 주시할 소지가 커 보인다. 만일 MSCI의 연례 시장 분류에서 관찰 대상국에 등재될 경우, 약 24개월의 시간을 거쳐 2028년 6월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채권시장이 WGBI에 편입되었고 정부도 외환시장 선진화를 독려했던 만큼, 어쩌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520	1550
달러엔	160.5	162.5
유로달러	1.141	1.156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운용 규모는 5~6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이 실제 선진국 지수로 승격될 경우 벨류에이션 뿐만 아니라 펀드플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이 편입되어 있는 MSCI 신흥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2조 달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훨씬 크고 탄탄한 집으로 이사하는 셈이다. 그리고 관찰 대상국 기간을 거쳐 실제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벨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6조~44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선진국 지수는 신흥국 지수보다 격이 높은 만큼 한국의 비중은 크게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MSCI의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신흥국 지수에서 유동주식으로 평가한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은 22%로 대만(23%)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아무래도 반도체 호조로 국내 증시가 역대급으로 빠르게 커진 결과, 지난해초만 해도 10%를 밑돌던 한국의 신흥국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문제는 그렇다 해도 선진국 증시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선진국 지수대비 한국 시가총액은 현재 3%에 불과하다. 즉 선진국 지수 추종 자금이 신흥국의 3~4배 이상 크다 해도 한국이 4% 이상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스매칭으로 인한 기계적인 자금유출이 불가피하다. 이를 피하려면 일본(5.7%), 영국(3.5%), 캐나다(3.4%)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금융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야만 한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따라서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주식시장에서 환영할 뉴스이지만,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희망과는 거리가 있겠다. 물론 실제 편입에 2년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한국의 PER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AI붐을 타고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GDP대비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에 육박할 정도로 과열되어 있고, 최근 MSCI가 한국의 시장 개선에 대해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너무 이를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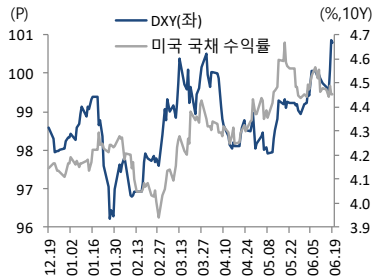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닭 머리보다 용 꼬리가 낫다?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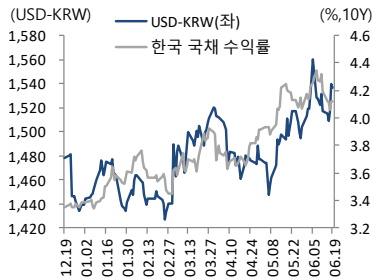
DXY(미달러 인덱스)



리뷰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선호도는 오히려 상승. 중동 긴장감 완화에 따른 위험 선호와 더불어 매파적으로 돌변한 FOMC가 반영된 듯.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점도 표 상향 등으로 금리인상 경계감 대두
프리뷰	유가하락 감안시 연준의 신속한 금리인상 단행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 FOMC 멤버들의 통화정책 및 물가 발언에 따라 다소간의 출렁거림 나타날 소지. 시의 주도권 이어지며 미국 증시 상승세 계속되고 있어 달러 약세 유인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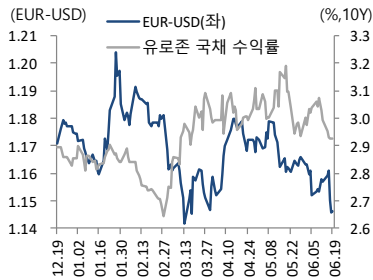
USD-KRW(한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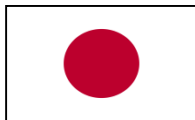
리뷰	주초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가 공식화되면서 호르무즈에서 선박 통항 재개되고 유가 하락. 이 과정에 환율이 15일 1,503.9원까지 내렸으나 이후 반등. 케빈 워시 의장 체제의 첫 FOMC가 인플레이 위험 지적하며 매파적 태도 보이면서 한때 1,540원 상회
프리뷰	미국-이란 합의 발효와 호르무즈 통항 개시는 고무적이지만,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과 통행료 문제는 향후 협상 좌초 위험을 시사. 매파적 FOMC 여론 속에 연준이 소통 줄이면서 美 GDP나 PCE 지표에 대한 반응도 커질 듯. 환율 상방 위험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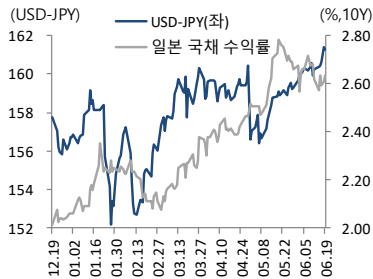
EUR-USD(유로화)



리뷰	미국과 이란이 MOU 합의를 공식화하고 유가가 2월 말 개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자 유로화가 반등하여 주초 1.16 회복. 그러나, 케빈 워시 체제의 첫 FOMC가 매파적 신호 보내면서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상승하면서 유로화가 주 후반 1.15 하향 돌파
프리뷰	6월 유럽 ECB가 금리 인상한 반면, 미 연준은 동결했으나 향후 전망에서 미 연준의 매파적 정책 가능성 부각되며 유로화에 하방 압력. 향후 미국-이란 협상의 좌초 우려 고려하면 무게 중심은 하방에 위치. 23일에 발표될 유럽 6월 PMI 잠정치도 하방 리스크



USD-JPY(일본 엔)



리뷰	일본 BOJ가 16일 기준금리를 1%로 25bp 인상했지만 엔화에는 별 이벤트가 되지 못했음. 환율이 160엔을 넘어 주중 내내 완만하게 상승하다 매파적 FOMC를 만나면서 161엔마저 돌파. 일본 5월 CPI는 예상에 부합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프리뷰	엔화 약세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면서 BOJ가 통화정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하지만, 문제는 엔화의 금리 민감도가 예전 같지 않아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일본 당국 개입 없다면 165엔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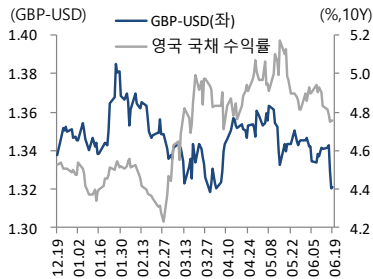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닭 머리보다 용 꼬리가 낫다?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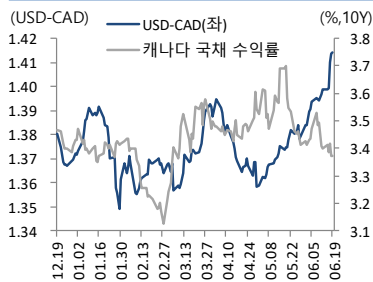
GBP-USD(영국 파운드)



리뷰	지난 주 유럽 ECB가 금리 인상하고 미 연준이 매파적 금리 동결한 것과 달리 18일 BOE는 소극적 태도로 금리 동결. 또, 영국 4월 GDP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다만, GBP 약세는 달러 강세와 유로화 약세가 핵심 견인차였음
프리뷰	영국 노동당 리더십 교체 가능성 상승. 벤틱 마켓은 연내 스타머 총리 사임 및 번햄(Burnham) 총리 취임을 높게 반영. 향후 영국 재정 리스크 재부상할 수 있고, 영국 CPI는 둔화되었으며 미 연준 매파적 정책 경계감과 미-이란 협상 좌초 위험 고려시 리스크는 GBP 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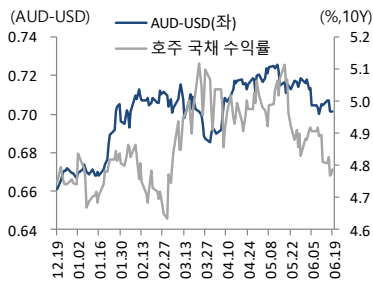
USD-CAD(캐나다 달러)



리뷰	5월 초부터 환율이 일방적 상승 기조 이어가는 가운데, 매파적 FOMC 더해지면서 18일 1.41 상향 돌파. 가장 큰 모멘텀은 양국간의 금리차. 5월 초부터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한 양국의 2년 국채 금리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CAD 약세를 정당화
프리뷰	7월 USMCA 정기 검토를 앞두고 무역 측면에서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는 중. 미국과 캐나다의 성장 모멘텀 격차로 양국간의 금리차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25일 발표될 미국 1Q GDP 확정치 및 PCE 인플레이션도 환율 상승 뒷받침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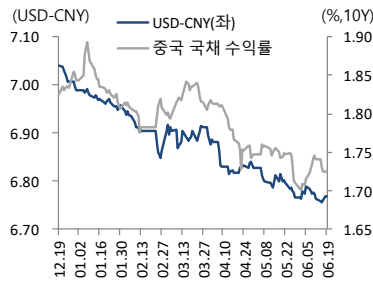
AUD-USD(호주 달러)



리뷰	주초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가 공식화되면서 호르무즈에서 선박 통항 재개되고 유가 하락. 이 과정에 AUD가 15일 0.709에 육박했으나 이후 반락. 케빈 워시 의장 체제의 첫 FOMC가 인플레이 위험 지적하며 매파적 태도 보이면서 AUD가 0.70 위협
프리뷰	미국-이란 합의 발효와 호르무즈 통항 개시는 고무적이지만,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과 통행료 문제는 향후 협상 좌초 위험을 시사. 매파적 FOMC 여운 속에 연준이 소통 줄이면서 美 GDP나 PCE 지표에 대한 반응도 커질 듯. AUD도 당분간 눌릴 듯



USD-CNY(중국 위안)



리뷰	위안화가 큰 흐름상 강세를 이어가며 17일에는 역외(USD/CNH) 환율이 6.75에 근접. 그러나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체제의 첫 FOMC에서 연준이 매파적 신호 보내자,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상승하면서 환율이 주 후반 6.78까지 반등
프리뷰	위안화 강제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그간 일방적 흐름이었기에 단기적 되돌림은 얼마든지 가능. 미국 연준 향한 기대가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이 그 시기일 수 있음. 25일 예정된 미국의 1Q GDP 확정치와 PCE 인플레이션도 단기적 환율 반등 초래 가능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닭 머리보다 용 꼬리가 낫다?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6-22-2026 10:00	CH	1년 대출 프라임 금리	22-Jun	3.00%	3.00%	52
6-22-2026 10:00	CH	5년 대출 프라임 금리	22-Jun	3.50%	3.50%	46
6-22-2026 21:30	CA	CPI (전년대비)	May	3.00%	2.80%	95
6-22-2026 23:00	EC	소비자기대지수	Jun P	--	-19	67
6-23-2026 6:00	SK	소비자심리지수	Jun	--	106.1	61
6-23-2026 17:00	EC	S&P 글로벌 유로존 제조업 PMI	Jun P	--	51.6	90
6-23-2026 22:45	US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Jun P	54.8	55.1	90
6-24-2026 10:30	AU	CPI 전년비	May	--	4.20%	78
6-24-2026 17:00	GE	Ifo 기업환경	Jun	--	84.9	98
6-24-2026 21:30	US	경상수지	1Q	-\$241.0b	-\$190.7b	74
6-24-2026 23:00	US	신규주택매매	May	640k	622k	88
6-25-2026 10:30	AU	실업률	May	--	4.50%	97
6-25-2026 21:30	US	개인소득	May	0.40%	0.00%	87
6-25-2026 21:30	US	개인소비지수	May	0.50%	0.50%	87
6-25-2026 21:30	US	PCE 물가지수 YoY	May	4.10%	3.80%	63
6-25-2026 21:30	US	내구재 주문	May P	-6.00%	8.00%	91
6-26-2026 8:30	JN	도쿄 CPI (전년대비)	Jun	1.60%	1.40%	73
6-27-2026 10:30	CH	공업기업이익 연초대비 전년비	May	--	18.20%	48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537.4	226.5
고가	1,539.6	227.2
저가	1,522.0	224.1
종가 ¹⁾	1,527.0	225.0
전일비	-0.1	-1.0
평균환율	1,535.0	226.4
NDF(1M)	1,526.6	
거래량	164(억불)	214(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530.50	13.90
JPY/KRW	949.17	-5.01
EUR/KRW	1,755.47	-0.82
GBP/KRW	2,026.31	-7.88
AUD/KRW	1,073.31	-7.18
CAD/KRW	1,081.46	-8.18
USD/JPY	161.30	-0.08
EUR/USD	1.1471	0.0013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 ²⁾	전일비
1Y	3.528	0.019	2.980	0.06
2Y	3.821	0.022	3.190	0.07
3Y	3.908	0.026	3.245	0.06
4Y	3.957	0.036	3.320	0.04
5Y	3.980	0.034	3.410	0.06
7Y	4.008	0.035	3.480	0.09
10Y	4.029	0.032	3.370	0.13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92	0.00
통안 1년	2.18	+0.03
통안 2년	3.68	+0.03
국고채 3년	3.78	+0.03
국고채 5년	4.00	+0.05
국고채 10년	4.17	+0.05
국고채선물(3년)	102.93	-0.01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15	10.00	2.73%
3M	-350	15.00	2.82%
6M	-740	-40.00	2.94%
1Y	-1,570	-140.00	3.05%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 ³⁾	전일비
1Y	3.97	0.003	4.05	0.023
2Y	4.18	-0.008	4.05	-0.004
3Y	4.19	-0.022	3.99	-0.015
5Y	4.23	-0.030	3.95	-0.024
10Y	4.45	-0.034	4.05	-0.025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9,052.42	-11.42	-0.13%
미국 DOW	51,564.70	+72.15	+0.14%
중국 상해종합	4,090.48	-17.59	-0.43%
일본 NIKKEI 225	71,250.06	+196.57	+0.28%
영국 FTSE 100	10,363.27	-36.43	-0.35%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76.60	-0.19
금 (선물)	4,224.10	-134.80
3M TERM SOFR	3.70	+0.02
3M EURIBOR	2.33	-0.06
KOR 5Y CDS	21.92	+0.02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